

白雲風流와 三傑的 思惟

백숙아*

<차 례>

- I. 白雲風流의 意義
- II. 白雲風流의 詩學的 美學
 - 1. 寒暄堂 金宏弼과 新齋 崔山斗
 - 2. 新齋 崔山斗와 湖南三傑
- III. 白雲風流의 文學史的 意義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성리학의 꽃을 피우는데 당연 화두로 꼽히며 이 땅에 도학을 뿌리내리게 한 金宏弼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金麟厚와 柳希春 등 당대 유명한 학자들을 지도했던 崔山斗와 湖南三傑, 그리고 유일한 스승인 호남도학의 조종인 김굉필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선 성리학은 주자학을 근원으로 사물인식에 있어 산수자연을 음영하여 심성수양의 기틀로 삼는 문학이다. 우주섭리와 인간심성을 연결 짓는 성리학적 세계관과 그 미의식을 체계화하여 ‘성리미학’이라 규정한다. 조선 사람과의 조종으로서 음영성정에 뜻을 둔 성리미학의 올곧은 학문을 전파한 한훤당 김굉필의 학문은 조광조와 최산두 같은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도의 구현에 앞장서게 했다.

16세기 호남의 풍류문학을 논함에 있어 원림중심이나 계획형식 등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든 누가 뭐래도 역사적 사실과 종교·철학적 영향관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논증에 의해 이미 주지한 바이다.

이 논문 역시 16세기의 호남문학의 역사적 사실과 그 시기 사람들이 지향

* 순천대학교

했던 도학적 사상을 토대로 백운풍류를 논하려 한다. 한편 백운풍류라는 새로운 명명을 조명하게 된 계기는, 조선전기 호남(전남·북과 광주를 아우르는 말)의 풍류문학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담양권의 계산풍류와 전북권의 태산풍류, 그리고 전남 동부권의 백운풍류로 분류함이 사림문학의 발전과정을 보다 더 면밀하게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분류라 생각해서이다.

먼저 조선성리학의 조종인 김굉필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며 제자를 길러 낸 신재 최산두가 살았던 백운산을 기점으로 하여 백운풍류를 논하게 됨은 사람들이 학문을 뿌리내리게 한 주변의 명산이 한 시대의 문학명명에 쓰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강호시가를 풍류문학 속에 포함시킬 때, 강호시가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공이 결합하여 경치 좋은 공간에 경영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 것이 바로 문학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특히, 호남의 마지막 정맥인 백운산 자락에서 태어나 학문의 道를 닦은 최산두를 화두로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시적·정신적·학문적 교유관계 등을 통해 백운풍류라는 새로운 문학명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핵심어 : 백운풍류, 계산풍류, 태산풍류, 강호시가, 조선의 성리학과 도학

I. 白雲風流의 意義

백운풍류를 논의하려면 먼저 고려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시적 명맥이 이어온 과정을 살펴야 한다. 고려를 건국할 당시 중심세력이었던 호남지역은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여러 활동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많은 인물들의 행적과 업적이 인멸되거나 전해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개인문집의 발간이 보편화되지 않은 탓과 전란으로 인한 소실 및 관심의 결여와 함께 정치적인 소외 등이 작용한

결과라 사료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광양의 김항원 나주의 정가신, 광산의 탁광무, 「창주집」을 남긴 담양의 김여지와 「동문선」에 <귀전영歸田詠>이라는 시가 전하는 이성, 「노송집」을 남긴 송희경 등은 고려시대 이 고장 문학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 중 광양의 인물로 부벽루에 올라 다닥다닥 걸려 있는 명사들의 시를 모두 떼어 내고 눈앞에 펼쳐진 승경을 보고 받쳐 오르는 감흥을 억제치 못해 시를 지어갔지만 두 줄 만을 짓고 그 다음을 잊지 못한 일화로 유명한 김항원을 들 수 있다.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났는데 요나라 사신이 왔을 때 궁중에서 잔치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일종인 <구호口號>라는 것을 잘 지어 요 나라 사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고문을 잘 지어 해동 제일로 칭송되었는데 이는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초에 이르는 당시 화려한 문체인 변려문이 유행한 것에 정면으로 대항한 글쓰기였기에 시기하는 자가 많았고 그로 인해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시호를 받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김항원은 당대의 문학풍조를 바꾸어놓을 만한 역량과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보한집」에 이재라는 사람에게 지어준 한 편의 시만 완전하게 전할 뿐 온전하게 전해오는 작품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학문적 활동이 보이지 않다가 조선중기 新齋 崔山斗(1482~1496)에 이르러 호남삼걸과 호남16걸로 활약하게 되며 호남동부권에서 오직 신재만이 문장에 명망을 떨치게 된다. 신재에 이어 구한말에는 우국지사였던 梅泉 黃玟(1855~1910)이 봉강면 석사리에서 출생하여 구한말 4대 시인 중 제1인에 이르게 된다. 매천은 32세에 구례로 이사하였으나 계속 광양과의 연고를 갖고 있었으며 유년시절 수학했던 석서 송정호의 손자이며 20세 연하인 서파 송하섭(1875~1958)과 긴밀한 교유관계를 유지했다.

서과와는 많은 시의 교류가 있었으며 그는 매천의 시풍과 시맥을 계승하여 광양에 전파하였고 향교 명륜당에서 시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그때 회원 수는 100여 명에 이르며 ‘雲南吟社’라는 시회를 결성¹⁾하여 활동을 하였으나 한시에 대한 관심저하로 옛 정취를 기대하긴 어려우나 지금도 그 명맥이 유지되어 백운풍류의 맥을 잇고 있다.

백운산 아래에서 보금자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많이 알려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에 이어 오늘날까지 한시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는 풍류를 아는 선조들의 시학적 정취 또한 주변을 통해 전달되어진 것이라 사료된다. 이 논문에서는 백운풍류의 중심인물로 조선중기 호남의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신재와 그의 주변 시인들을 함께 포함시켜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사대부들의 시풍을 살펴보면 色·酒·歌·舞를 매개로 한 고려시대의 사대부들이 즐겨온 풍류와는 달리 성리학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자연을 매개로 하여 도의를 기뻐하고 성심을 길러서 성정을 바르게 할 수 있음을 풍류라 여겼다. 여기서 신라의 풍류와 조선의 풍류가 서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결국 풍류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과 멋, 그리고 흥을 돋운다는 점에서 모두가 일맥상통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6세기 호남의 풍류문학을 논함에 있어 원림중심이나 계회형식 등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든 누가 뭐래도 역사적 사실과 종교·철학적 영향관계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순수하게 주변경관이나 자연환경을 문학으로 표현하는 것도 풍류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자연경관을 읊으며 심성을 갈고 닦은, 그리고 정신적 수양을 기틀로 삼는 도학자들의 풍류를 운하고 싶다.

이 논문은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꽃피우는데 당연 화두로 꼽히며 이 땅에 도학을 뿌리내리게 한 寒暄堂 金宏弼(1454~1504)과 그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은 新齋 崔山斗(1482~1496)를 중심으로 懶齋 柳成春(1495

1) 『광양시지』 제1권, 광양시지편찬위원회, 2005년, 839쪽.

~1522), 橘亭 尹懼(1495~1549) 등 湖南三傑을 함께 白雲風流에 포함시켜 전개해나갈 것이다.

백운풍류라는 새로운 문학적 명명을 하게 된 계기는 우선 조선전기 호남의 풍류문학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연구하는 방법이 호남사람의 풍류를 논하는 데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첫째, 전북지역으로 최치원이 풍류를 논하며 제자들을 양성했던 유상대를 중심으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太山이라는 명산의 이름을 따서 太山風流²⁾라 한다. 둘째, 담양의 원림과 정자문화를 감싸고 있는 계산의 이름을 따서 계산풍류³⁾라 한다. 셋째, 원림도 정자문화도 계획형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운산은 호남사람의 조종인 한훤당이 주변에 살며 호남의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다. 또한 호남의 거유 하서와 미암을 길러낸 신재가 태어난 곳이다. 그리하여 호남의 마지막 정맥이며 전남 동부권의 명산인 백운산의 이름을 따서 백운풍류라 칭했다.

아울러 이 논문은 기존의 문집과 논문들을 토대로 하며 필자가 발표한 「新齋 崔山斗의 詩世界」와 「橘亭 尹懼의 詩 研究- 風流的 思惟의 接近 -」 등⁴⁾의 내용일부를 실었음을 밝힌다.

2) 송수권, 『태산풍류와 섬진강』, 토우, 2000. 이 책에서 태산풍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다.

3) 임형택, 「16세기 광·라 지역의 사립층과 송순의 시세계」,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상)』, 1991, 408쪽.

4) 백숙아, 「新齋 崔山斗의 詩世界」, 『古詩歌研究』18집, 2006, 213쪽(신재의 시세계).

백숙아, 「橘亭 尹懼의 詩 研究- 風流的 思惟의 接近 -」, 『南道文化研究』13집, 2007, 200쪽(시의 형상화와 시풍).

II. 白雲風流의 詩學的 美學

1. 寒暄堂 金宏弼과 新齋 崔山斗

寒暄堂 金宏弼(1454~1504)의 아명은 孝童, 자는 大猷, 호는 寒暄堂, 시호는 文敬, 본관은 瑞興이다. 1454년 5월 25일 서울 정릉동 사저에서 태어났다. 19세 때에 합천군 야로면 말곡 남교동에 사는 순천 박 씨의 집에 장가들었다. 장가 든 이후 조그만 서재를 순천 박 씨의 집 옆 개천 건너의 작은 바위 아래에 짓고 한훤당이란 호를 붙였다.

한훤당이 본격적인 학문 수업에 몰입하게 된 것은 21세가 되던 1474년(성종 5년)봄 함양군수로 있던 金宗直(1431년~1492)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부터이다. 김종직은 김굉필에게 『小學』을 배우기를 권하며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두려면 마땅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光風霽月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⁵⁾’며 『小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굉필은 이로부터 손에서 『小學』을 놓지 않았고 스스로 ‘소학동자’라 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야 다른 글을 읽었고 후진양성에 힘쓰니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았다.

1494년(성종 25년) 그의 나이 41세에 경상감사가 한훤당의 행의를 성종께 아뢰므로서 남부참봉에 제수되어 관료의 길로 들어서서 1497년(연산군 3년)에 형조좌랑까지 지내며 벼슬을 했다. 1498년(연산군 4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나 점필재의 문도로서 붕당을 맺어 나라의 정치를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평안도 희천군에 부처되었다가 전라도 순천부로 옮겨졌다. 그 후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그의 나이 51세를 일기로 유배지 순천에서 처형되었다.

호남 21명사⁶⁾의 한 사람으로 지칭되고 한훤당의 직계 문인으로 기묘

5) 金埴, 『海東名臣錄』, 동화출판사, 1985, 48쪽~51쪽.

6)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출판부, 90쪽, 2007. (박상, 박우, 치산두, 양팽손, 송순, 유성춘, 윤구, 임억령, 오겸, 나세찬, 이항, 김인후, 유희춘, 임형수, 양응정, 박상, 기대승, 고경명, 백광훈, 최경창, 임제 등

명현이며 당대 훌륭한 문장가였던新齋 崔山斗(1482~1536)의 字는 景仰이요, 號는 新齋, 羅菴山人, 籠中子 등이다. 본관은 草溪로 전남 광양군 봉강면 부저리에서 태어났다. 15세 되던 해에는 『資治通鑑綱目』 80권을 안고 석굴에 들어가 2년 동안 기거하며 이 책을 천 번이나 통독하고 해석한 후 굴 문을 나왔다⁷⁾고 한다. 이 시기에 순천 북문 근처에 유배되어 있었던 당시 사림의 종장으로 추앙받던 점필재의 高足인 한훤당의 처소를 드나들며 학문연구를 심화⁸⁾했다.

37세 중종 14년 기묘년 9월에 司憲府 壯齡에 승직되고 이어 議政府 舍人에 올랐으나 이 해 11월 15일 홍경주, 남곤, 심정 등 勳舊勢力들의 構禍에 의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신진사류 8賢이 먼저 화를 입었고, 곧이어 최산두 등 23賢이 유배 또는 파직되는 화를 입게 되므로 최산두는 削奪官職되어 전남 동북현에 유배되었다. 14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화순 동북에서 지내게 되는데, 신재는 유배가 풀린 후에도 계속 동북에 머물며 많은 유림들을 배출시키고 河西 金麟厚, 石川 林億齡, 眉巖 柳希春 등의 그 시대에 쟁쟁한 학자나 문인들과 교류하며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힘썼다.

신재의 유일한 스승인 한훤당의 학문과 사상이 호남지방의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계기는 순천에서의 유배생활에 기인한다. 전라도 최초의 사액서원인 옥천서원이 순천에 세워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순천의 유배지에서 그에게 학문을 익힌 문인으로서 유계린·최산두·장자강·맹권 등의 기록에 뚜렷하다. 유계린은 호남삼걸 중 한 사람인 유성춘과 동생 유희춘의 부친이다. 유계린은 그의 자식들에게 도학을 가르쳤으며, 호남사림의 중심에 자리한 하서 김인후와 유희춘 또한 최산두에게 학문을 전수 받았다. 이 장에서는 스승인 한훤당과 그의 학문적 전통을 직접 전수받은 최산두의 시문을 物我一體의 도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을 지칭함)

7) 『新齋集』, <序文>, 郎州印刷社, 1989, 24쪽.

8)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11쪽.

한훤당은 당시 도학을 주창하는 사람으로 詩·文章 등 詞章學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의 詩文이 적었으며 戊午·甲子 두 번의 士禍를 겪으면서 가족과 친지들에 의해 그와 관련된 글이나 문자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리하여 남아있는 작품으로 시 10여 편과 부 1편, 그리고 문 4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한훤당의 대표적인 시 몇 편을 선택하여 작품의 특성과 도학적 풍류양상을 살피도록 하겠다.

다음 작품은 훗날 학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한훤당의 <書懷>⁹⁾ 이다.

處獨居閑絕往還 홀로 한가하게 살아가니 오가는 이 끊기고
只乎明月照孤寒 다만 밝은 달 불러서 홀로 외로움을 달랜다
煩君莫問生涯事 그대여 번거로우니 삶을 묻지 말게나
數頃煙波數疊山 두어 이랑 연파와 몇 겹 산 뿐인 걸

이 시는 청국시인 王士禛이 저술한 『池北偶談』에 조선의 명시 수십 수를 수록하여 찬양하였는데 그 중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¹⁰⁾ 그의 나이 19세 때 쓴 시로 산수자연과 사대부의 ‘吟咏性情’의 한정을 읊은 詩이다. 여기에서 ‘獨’, ‘閑’, ‘寒’ 등의 시어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 은거하며 수양하는 군자의 道學的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유배지에서 홀로 외롭다 못해 한가로움까지 느껴지는 생활이 쓸쓸하기만 했겠는가?

그리고 ‘明月’, ‘生涯’, ‘疊山’은 강호시가에서 말하는 ‘閑寂의 美’로 심성을 다스리는 성리학적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한적은 인간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로 재편되어가는 시대적 기운 아래 인간이 세계와 동화하여 자신의 본성을 지킬 것인가를 모색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갖고 있는 원초적, 육체적 일체감을 통해 자연과 동화할 수 있는 인간의 길을 발견하려던 소산¹¹⁾인 것이다.

한훤당은 21세 늦은 봄에 김종직을 찾아가 글을 배웠다. <書懷>를 作

9) 寒暄堂先生記念事業會, 『國譯 景賢錄』, 1969年, 44쪽.

10) 위의 책, 471쪽.

11)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보고사, 2004년, 242쪽.

詩할 때에는 『小學』에 심취하기 전이었으며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수학을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타고난 학문적사고로 도학 탐구에 힘써 음을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며 훗날 도학의 조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석이 된 것이다.

다음은 가야산의 자연을 읊은 <臨沼閣吟>¹²⁾이라는 詩이다.

月鎖無邊地	달빛은 끝없이 땅을 에워싸고
池涵不住天	못물은 잠시도 쉼 없는 하늘을 머금었네
我來消畏日	내 여기에 와 여름날을 보내자니
絕勝馭冷然	멋진 경치 바람처럼 타고 다니네

한훤당이 장가들고 부인이 아직 시집오기 전에 조그만 서재를 순천 박씨의 집 옆 개천 건너의 작은 바위 아래에 짓고 ‘寒暄堂’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오래 동안 이곳과 가야산을 오가면서 공부를 했고 내원사에 오래 머물러 글을 읽었다고 한다. 慕齋 金安國(1478~1543)의 시에 “듣건대 김공이 집지어 살던 곳이라고 하니 가야산이 응당 무이산이라. 聞說金公樓築處 椰山應是武夷山”¹³⁾고 했다. 이는 한훤당을 武夷山의 朱子에 비추어 표현한 말이다.

조선조 사림의 성리학은 인간 중심의 정신주의 철학으로 자연 생명질서의 본질과 천지운행의 근원을 그 ‘앎’, ‘궁극의 진리’, 또는 ‘도’를 추구하는 학문정신에 의하여 천지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 결과 대자연과의 정신적 융화를 통하여 산수은거를 가치실현과 자아성찰, 실천궁행을 통한 수양의 생활로 인식하고, 대자연의 이법을 표상하는 이념미의 세계를 지향하였다.¹⁴⁾ 이는 분명 새로운 산수미의 詩境에 대한 개척이다.

이 시에서도 ‘달빛’, ‘못물’, ‘절경’, ‘땅’, ‘하늘’, ‘바람’은 자연경관을 담

12) 『國譯 景賢錄』, 37쪽.

13) 위의 책, 82쪽.

14)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출판부, 2006, 33쪽.

은 시어로 주체인 ‘나’와 함께 物我一體를 담고 있다. 또한 자연 속에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녹아있으며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의 조화로움을 즐기는 安閒自適이 느껴진다. 따라서 자연을 추구하는 시적 자아가 道學의 美를 자아낸다.

다음은 송고한 인간의 절의를 담고 있는 <路傍松>¹⁵⁾이라는 작품이다.

一老蒼靜髯路塵 푸른 노송 한 그루 길의 먼지 맞으며
 勞勞迎送往來賓 수고롭게 오가는 길손을 맞이하고 보내네
 歲寒與汝同心事 추운 겨울에도 너와 같이 마음이 변치 않는 걸
 經過人中見機人 지나가는 사람 중에 몇이나 보았는가?

예로부터 소나무는 푸르름이 사계절 변함없어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붉은 솔의 몸은 사악한 기운을 제압하고 푸른 솔은 생명의 창조와 번영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老松’은 속세의 먼지를 맞으며 시름을 앓는 도학자의 자화상이며 ‘歲寒’은 도학자가 바라보는 현실의 아픔을 그린 것이다.

도학자의 절의와 번뇌를 함께 표현한 이 작품에서 한훤당의 애환과 군자의 도리를 엿볼 수 있다. 군자는 혼탁한 속세를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려 하지만 소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이상 세계의 설계, 즉 성리학적 道를 확립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표현되었다. 결국 도학을 바탕으로 作詩한 성리학적 문예미를 작품에 실고 있다.

16세기 사림들은 혼탁한 정치현실 속에서 대립된 공간의 청정함과 순수한 자연현상을 문학적 공간으로 삼았다. 자연의 무한한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사상적·예술적 관계를 다양하게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관계를 문학적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며 표현함에 서정적 창작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음은 한훤당의 『讀小學』¹⁶⁾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한다.

15) 『國譯 景賢錄』, 44쪽.

業文猶未諳天機 문장을 업으로 삼았으나 천기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小學書中悟昨非 소학이란 글 속에서 어제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네
 從此盡心供子職 이를 좇아 제자의 도리를 다하려니
 區區何用羨輕肥 구구하게 어찌 경전의 비대함을 부러워하겠는가?

이 작품은 한훤당이 점필재로부터 『소학』을 배우면서 깨달음을 표현한 시이다. 그는 자신을 ‘소학동자’라고 칭했다. 뿐만 아니라 나이 30이 되기 까지 오직 소학을 놓지 않고 율신에 진력하였다. 누가 국가의 일을 물어 오면 반드시 ‘소학동자가 어찌 대의를 알리오’라 하였다한다. 스승으로부터 『소학』의 가르침을 받고 깊이 이해하여 도학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했다. 한훤당은 마음으로 도를 깨닫고 실천궁행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 길은 훌륭한 제자육성을 통해 한국의 도학을 확고히 수립하게 했다.

이 시에서 ‘天機’와 ‘子職’이라는 시어는 우주섭리 또는 조화의 신비를 나타내는 말로 道를 주창하는 성리학적 사림들이 가치관을 실천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의식된다.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의식은 사회적 풍조요 선비의 고상함으로 인식되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 의하여 개인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교육하며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해 나갔던 것¹⁷⁾이다. 이러한 가치관 형성과 사상적 사고는 ‘天機’를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우주섭리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도학의 바탕위에 ‘子職’이라는 도리가 굳건하게 확립되어짐을 이 시를 통해 직감할 수 있다.

한훤당은 주지하듯이 한국적 도학을 이 땅에 확립한 사람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훌륭한 제자들을 육성하였다. 특히 호남삼걸로 일컬어진 신재 최산두에게 전수된 학문은 하서 김인후를 이어졌으며, 이후로도 이들을 통해 많은 후학들을 육성하였으며 호남의 도학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사를 이루었다. 또한 백운산의 인근인 순천에 이배되었을 당시 신재를 사가

16) 『國譯 景賢錄』, 38쪽.

17) 손오규, 위의 책, 25쪽.

독서하게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시대 호남삼걸로 불리며 호남의 문학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橘亭 尹懼와 新齋 崔山斗, 그리고 懶齋 柳成春 등의 문풍을 풍류적인 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백운풍류를 중심으로 湖南三傑의 思惟 및 風流的 詩風을 살피도록 한다.

2. 新齋 崔山斗와 湖南三傑

조선조에는 儒賢淵源의 정통을 들 때에 ‘포은-야은-점필재-한훤당-정암’의 계승을 흔히 대표적인 정맥으로 손꼽는데, 이들의 학맥에서 양성된 호남의 사림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估畢齋 金宗直은 흔히 성리학에 밝은 대표적 사림으로 일컫는다. 그는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온 金叔滋의 아들인데, 김숙자는 길재의 문인이요, 길재는 또 정몽주의 수제자라는 점에서 이는 고려 말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정통임을 알 수 있다.¹⁸⁾

호남의 사림 역시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조광조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에서는 이들의 문하에서 맥이 이어지는 호남가단의 사림들 중 당시 문장과 절행이 뛰어나 湖南三傑로 불렸던 신재와 굴정, 그리고 나제 등 세 문인의 문학적 관계와 사유를 밝히고자 한다.

호남삼걸로 하필 이들이 거론된 것은 문장이 뛰어나고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며 훌륭한 후학들을 길러냄으로서 얻어진 칭호이다. 먼저 崔溥에게서 학문을 전승한 어초은과 유계린 등은 같은 해남 출신들에게 학문을 전수한다.¹⁹⁾ 윤희정은 아들인 윤구에게, 유계린은 아들 유성춘·희춘에게 학문의 계통을 잇게 됨은 호남삼걸 중 두 문인이 최부의 학문을 이어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편, 점필재 김종직의 학문을 이어받은 한훤당은 신재에게 학문을 전수하여 명실공이 최산두와 윤구, 그리고 유성춘이 당시 호남삼걸에 이를 정도의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다. 호남사림들을 칭송하는 글은 다음 허균의「惺翁識小錄」에서도 찾을 수 있다.

18) 朴煥圭, 위의 책, 76쪽.

19) 朴煥圭, 위의 책, 105쪽.

청릉(중종의 능호)조에는 호남 출신의 인재로서 드러난 자가 매우 많았다. 놀재 박상 형제·사인 최산두·미암 형제·교리 양팽손·제학 라세찬·목사 임형수·하서 김인후·석천 임억령·삼제 송순·찬성 오겸 같은 사람은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이들이다. 그 후로도 사암 발순·일제 이항·송천 양응정·고봉 기대승·태헌 고경명 등이 학문이나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재행으로 당대에 드러난 이가 한 사람도 없다.²⁰⁾

인맥의 유대는 이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호남시단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데 공헌이 되었다.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김굉필의 제자인 최산두는 하서 김인후와 유희춘 등 당대 명류들을 제자로 길러내어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기묘사화 이후 호남의 이와 같은 문맥을 형성한 학맥은 최부와 박상, 그리고 송흠을 주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중 박상은 자신의 제자인 임억령, 그리고 해남으로 유배 되어온 윤구, 장흥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신잠, 그밖에 최산두와 유성춘 등과 시사회를 갖고 사림 동지로서의 유대를 긴밀히 하였다²¹⁾는 일 등은 호남사림의 인맥형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사림들에게 道學은 堯舜으로부터 공자·맹자를 거쳐 주자에게 계승된 道統을 기반으로 하며, 格物致知하여 善을 밝히고 誠意正心하여 몸을 닦고 그것이 몸에 쌓일 때는 天德이 되고 정사에 베풀면 王道가 되는 학문이었다. 또한 지치는 三代之 政치를 의미하였다.²²⁾ 이는 앞에서 거론한 호남 삼걸 중 윤구와 최산두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의 세 정기 중 봉황의 정기를 타고 난 신재는 身骨이 빼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영특하여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다. 김굉필의 도학적 학문을 이어받은 그의 詩에서는 성리학을 토대로 도학자적 입장에서 지향되는 세계와 자연현상과의 親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껴오던 交遊詩에 나타난 삶의

20) 許筠, 「惺翁識小錄」中 『國譯 惺所覆瓿藁』, 권23, 民族文化推進會, 1967, 155쪽.

21) 윤영표, 『棠岳文獻』禮, 海南尹氏文獻 권1, <橋亭公>.

22) 鄭炳連, 「靜菴의 道學倡明과 至治의 理念」, 『學思想研究』2, 儒教學會, 1987, 45쪽.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격동기에 겪었던 많은 경험들로 얻어진 忠孝의 敎訓詩의 表現樣相과 무엇보다도 그의 정신적 사상이 짙게 담겨져 있는 敍述詩의 形象美 등이 시풍의 주류를 이룬다. 이 또한 유가적 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충효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도학자적 입장에서 자연과 세계와의 조화와 절제미 등을 풍류적 사유로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신재의 나이 18·9세 때 서울로 올라가 趙光朝, 韓忠, 金淨, 金安國, 金湜, 金正國, 朴世燾 등과 더불어 학문적 사귀이 깊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洛中君子會’라 하였다. 그가 柳成春, 尹衢 등과 더불어 ‘湖南三傑 斗衢春’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를 즈음해서가 아닌가 싶다. 또한 學圃 梁彭孫의 문집에서는 崔山斗와 奇遵, 朴世燾, 梁彭孫을 일러 ‘史學士’라 일컬었다는 기록²³⁾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經筵의 講官을 세상에서 史學士라 칭하는데 선생하고 服齋奇公遵 道源齋朴公世燾 新齋崔公山斗가 바로 그분들이다. 모두 한 때의 학문과 행검이 있던 선비였는데 날을 번갈아 가면서 시강을 했다.

河西의 문집에는 그의 스승인 최산두를 위해 지은 祭文이 있는데, 여기에서 ‘옛날 내가 丁亥日을 받아 黔中으로 술을 싣고 가서 서로 만나면 쌓였던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 분이 안 계신 지금 이 상자를 열고 조심스레 그 분의 글을 펼쳐보고자 하니, 주위의 몇몇 친구들도 흔쾌히 호응해 주면서 궁금해 한다. 황혼의 나이에도 한번 시험해보려 하면 그 분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함을 알고 있음이다.’²⁴⁾라고 하여 최산두의 훌륭한 생애를 추모하고 있다.

먼저 최산두의 작품 중 다음의 <天子菴遊觀>²⁵⁾을 보면 이와 같은 도

23) 『國譯 學圃集』, 大盛出版社, 檀紀 4326, 121쪽, <家狀>.

24)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新齋集』, 1989, 180쪽, <祭崔新齋先生文>, 昔余獲見丁干亥支載酒黔中相遇不疑快談千古襄篋疑披二三君子與相追隨黃昏一試賴此大醫.

학자적 시풍을 한층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다.

同來白髮好風情 같이 걸어온 백발 풍채도 좋을시고
 節履斜陽氣太清 지팡이 걸음에 저물녘 공기가 너무도 맑다.
 何處靑菴云別界 별천지에 자리한 靑菴이 어느 곳이던가
 穿林故向暮鍾聲 숲을 헤치며 저녁 종소릴 향해 걷는다.

천자암을 보기 위하여 함께 동행한 백발이 성성한, 그렇지만 풍채가 당당한 인물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사림들의 입장과 처지를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천자암’이 상징하는 것과 ‘백발’이 뜻하는 바를 음미해 보면 시인의 뜻함이 무엇인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白髮翁’은 己卯名賢을 빗대어 士林들의 불굴의 표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진실을 지키려는 굳은 절개를, 그리고 청초하고 고고한 자세로 永遠性을 지향하는 自然의 세계를 士林에 빗대어 描寫하고 있다. 이는 自然景物을 통하여 性情을 도모하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겪는 세상의 많은 苦痛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처럼 힘든 일은 없다. 삶과 죽음의 억울한 엇갈림이 당시의 정치현실이고 보니 그도 또한 사랑하는 知友들과 헤어져 동북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고,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맞보는 순간에 자연을 빗대어 불굴의 의지를 풍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산두의 개인적인 고독과 괴로움의 이면에 질게 깔린 진실한 그리고 순수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다음 <司馬宴>²⁶⁾은 자연과의 조화미가 한층 더 표출되고 있는 詩로 河西의 ‘술 대하면 거나하고’²⁷⁾라고 했던 신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되새기게 한다.

25) 『新齋集』, 90쪽.

26) 위의 책, 87쪽.

27) 金麟厚, 『河西全集』, 下, (株)寶晉齋, 1988, 99쪽-105쪽, <祭崔新齋文> 揚行草羽毛褰襪豪橫縱酒跌宕鬪棊彎強發勁無適非宜.

桑葚青紅柿葉肥 뽕나무는 푸르고 오디는 붉고 감잎은 두툼하니
 小園風物屬芳菲 작은 동산에 풍물들이 꽃답고 향기롭네
 欲知司馬樽中盡 司馬所 술동이 빈 까닭을 알려거든
 看取先生醉後歸 선생이 취해 돌아가는 모습에서 찾아보소

위의 詩는 『大東野乘』所載「海東雜錄」에 실려 있다. 그 詩作 유래를 보면 “일찍이 本縣 司馬所²⁸⁾에 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최산두가 먼저가 보았더니 다른 司馬들은 아직 모이지 않아 거기 마련해 둔 술을 다 마셔 버리고 돌아왔다. 지키는 자가 죄를 쓸까봐 두려워하므로 그는 감나무 잎을 따서 詩를 적어 놓았다²⁹⁾고 한다.

이 詩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취해서 뽕나무가 푸르고 오디가 붉으며 이 파리들이 두툼하듯 자신도 그렇게 되고픈 심정을 노래하여 자연현상의 멋을 진하게 묘사했다.

일찍이 文人으로 호남사림의 맥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河西 金麟厚의 문집에는 이러한 최산두의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시인다운 멋을 증명해 주는 글귀가 실려 있다. “생각하옵건대 靈은 높은 산 큰 龍虎의 모습이요, 늘씬한 몸 좋은 수염 神骨이 傀奇했네. 물들세라 닦일세라 웅장하고 호방하여 가슴속은 바람과 달 문장은 三峽을 쏘고 氣蓋는 세상 뒤었네”³⁰⁾라는 글을 보면, 그에게서 우러나는 모든 성정이 자연현상과 현존하는 속에서 詩文 속에 자연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그의 詩에서는 넉넉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자연의 정취를 맘껏 펼치고 있어 詩的 분위기를 한층 느낄 수 있는 그의 詩 <炊煙>³¹⁾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8) 위의 책, 88쪽. 사마소는 지방의 생원, 진사들의 사설기관으로 지방의 官衙 도처에다 별도로 건물을 갖추어 여기에 모여 지방정사를 논의하고 간섭하던 곳인데 폐해가 많아 조선 선조 때 혁파 시켰다.

29) 이동환, 「海東雜錄」, <崔山斗傳>, 『大東野乘』所載, 財團法人民族文化推進會, 1971, 76쪽-77쪽.

30) 『河西全集』, 199쪽, 新齋崔先生地靈惟靈高山大壑龍虎之姿長身美髯神骨魁奇.

31) 『新齋集』, 92쪽.

江南朝暮帶昇平
細逐村娥若有情
時時隨雨前山渡
洗出塵埃氣太清

江南땅 아침 저녁이면 昇平을 띠고
촌 아낙 따르는 모양 정이 있는 듯 하구나
때때로 비를 따라 앞산을 건널 때면
물은 티끌 씻어주어 기운이 더욱 맑구나

위의 詩에서는 자연과 인간사가 아울러 조화를 이루고 있는 敍景的 繪 畫美를 표현하고 있다. 밥을 짓는 연기가 촌색시의 치맛자락을 싸고도는 모습이나 산자락을 타고 넘는 모습이 實景처럼 묘사되어 천지운행의 질서에 인간의 現存이 주는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또한 詩의 분위기가 대체로 평온하면서도 정겨운 景中情의 융합수법으로 시인의 意境이 함축되어 깊은 여운의 맛을 느끼게 한다.

아침저녁으로 일렁이는 농촌의 진경을 시인의 여유 있는 시각으로 설정한 후 산자락을 타고 넘을 때엔 塵埃까지도 씻겨낸다는 표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천지운행의 질서를 조화롭게 합치시켜 한 편의 詩로 읊었다.

朝夕으로 느껴지는 눈앞에 펼쳐진 촌락의 풍경을 하나 하나 풀어서 서술하자면 한없이 길어지겠지만, 그는 단지 몇 개의 구절로 능숙하게 함축시킨 능력이 돋보이는데 그 아름다움을 자연스런 율조와 살아있는 리듬감으로 요약해 내는 솜씨 또한 일품이다. 그러면서도 촌락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멋진 勝景을 모두 묘사해 낼 수 있음은 그의 詩 창작성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짐작케 한다.

다음의 <漁網>³²⁾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현존이 융화하는 내용으로 詩想을 펼치고 있다.

鱗結義繩數可深
長江水盡積如林
設網以法無遺細

伏羲氏³³⁾ 의리의 줄로 촘촘히 엮은 그물은
長江 너른 물에 숲처럼 뻗뻗이 들어섰네
법으로 설치한 그물 빠져나갈 수 없나니

32) 위의 책, 93쪽.

33) 위의 책, 93쪽. 中國古代傳說上の 帝王, 三星五帝의 首位를 차지하여 8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雖有吞舟不敢侵

배를 삼킬 大魚라도 감히 犯치 못하겠네

위의 詩는 표면적으로 天理를 유지함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겠다는 성리학적 心性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옹지 않은 구속으로 여기고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연의 현상과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私利私慾을 채우겠다는 인간사를 꼬집어 자연의 자연스런 질서 회복과 그에 대한 조화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최산두는 자연현상을 비롯해 비판적 사회의식을 표명하고자 했으며 당대의 정치현실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읊은 경우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士林派가 국정에 참여하자 勳舊派가 질시하고 모순하여 축출한 뒤 민정이 편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국방에 대한 불만, 훈구파에 대한 적대의식과 사화이후의 秕政에 대한 답답함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贈尹橋亭衢>³⁴⁾는 『大東野乘』所載 <海東雜錄>1卷 ‘崔山斗傳’에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이 詩는 최산두가 舍人벼슬로 있다가 同福으로 귀양을 가서 蘿山 아래 살면서 湖南三傑의 한사람인 橋亭 尹衢에게보낸 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江路尋春晚	봄 따라 나선 강둑 길 해가 저물어
思君步月詩	그대 생각하며 달빛에 詩를 읊는다
年年山澗曲	해마다 산모퉁이 시냇물 사이에서
隨分有生涯	분수 따라 나는 살아갈 뿐이네

湖南三傑로 이름을 떨쳤던 尹衢를 그리워한 詩인데, 봄의 길목에서 밤을 새워가며 친구 생각으로 詩를 읊고 있다. 시인의 마음과 시의 내용은

34) 위의 책, 86쪽.

시냇물 소리에 실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가겠지만 현실의 처지, 곧 분수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비록 떨어져 사는 知友지만 글로나마 정담을 나누며 시름을 달래 보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詠鳥>³⁵⁾는 自然美의 永遠性을 吟味하면서 人間의 도리를 제시하는 성향을 보여 주는 作品이다.

雌雄莫辨孝爲名 암수 가릴 것 없이 모두 孝鳥라 이름하니
可愛禽中反哺聲 새 중에서도 ‘反哺’ 소리가 사랑스럽구나
天上人間靈物謂 天上에서나 人間에서나 靈物이라 이르니
雙星七月作橋迎 七夕이면 다리 놓아 두 별이 만나게 하더라

위의 詩에서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말을 상징하는 反哺라는 詩語로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비유하고 있다. 까마귀의 ‘반포’는 자연적인 것이며, 있어야 할 필연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인간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칠월칠석이면 다리를 놓아 두 별을 만나게 해 주는 것 또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이치와 삶을 조화롭게 나타내 주고 있다.

해남 柳氏 家에는 최산두의 제자이며 호남의 거유인 유희춘의 형인 유성춘이 윤구, 최산두와 함께 호남삼걸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유성춘은 기묘명현으로 사림문학을 주창했던 해남 유 씨 가의 도학적 문맥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으나 사회에 연루되어 금릉 땅으로 귀향하여 생활하다 4년 만에 2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다.

최근 선산 유씨 종친회에서는 1583년 세상을 떠난 柳浹(1523~1583)의 묘에서 誌石·木偶·帖裡 등을 발굴했다. 지식에 의하면 유희의 후손은 일찍부터 선산유씨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광양의 명망족인 신재 족친과

35) 위의 책, 85쪽.

결혼하고 농장을 경영할 정도의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후손은 상당기간 광양 순천에 세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 최산두는 미암과 나제의 부친인 성은공과 함께 한훤당에게 수학하였고, 나제와도 호형호제하면서 광양에서 교유하였기 때문에 초계최씨와 선산유씨의 유대는 각별하다. 유희의 백부인 孟權 또한 숙부 성은공과 함께 한훤당에게 수학하였으며 성은공이 해남으로 이거하고 나제가 급제하여 서울에 사관하고서는 광양에서의 신재와 맹권의 교유가 지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때 유성춘도 광양에 머물며 한훤당에게 사숙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나제의 문집과 일기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서 ‘강목부’ 한 편만이 전해지고 있어 문장과 언행이 온전히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유성춘은 문장도 출중했지만 효심도 깊었으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 또한 높았다. 특히 신재와 굴정 사이에 하나의 용의 명예로 떠들썩하였다. 는 말이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어 생전에 그의 학문적 면모와 인품을 연상케 한다.

호남삼걸 중 橋亭 尹懼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남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문과에 급제하여 賜暇讀書를 하였으며, 다음해 주서에 이어 弘文館校理·知製敎·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弘文館司成·淳昌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 14년(1519) 土禍가 일던 기묘년에는 윤구 역시 화를 입고, 그 다음 해에 해남의 삼산면 녹산으로 유배를 갔다. 그때의 나이는 26세로 한참 뜻을 펴고 출사의 경륜을 쌓아야 할 시절에 그는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귀양살이는 평소 좋아하던 글을 익히고, 作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³⁶⁾

윤구는 文과 德을 숭상하여 어려서는 지극히 선하고 바른 천성을 지녀 어버이께 효를 다하였으며, 형제간에 모이면 늘 학문에 대해 강론하며 오

36) 朴煥圭, 『孤山 尹善道の 生涯와 文學』, 전남대학교출판부, 1997, 2쪽.

랜 시간을 보냈다. 사회로 피폐해진 사회를 한탄하며 현실을 아파하면서도 절의를 잊지 않았으며, 타고난 천성을 오래 지켜 외부의 침입을 당하여도 당당히 제 빛을 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그의 정신적 사상을 그가 쓴 다음의 <悲絲>라는 ‘賦’ 作品中에서 엿볼 수 있다.

멀리 공자님과 맹자님의 성덕을 사모하니 두 분의 도덕과 사업이 지극히 선하고도 확실하다. 다함께 육경책자에 자세하게 실려 있으니 그의 의복 그대로 입고 그의 행동 그대로 실시하면 이 또한 가히 선에 물들여 간다고 말할 것이나 그러나 어찌 그 문하에서 직접 친히 교수 받은 것보다 낫다고 하겠는가! 하는 수 없다면 곧 한 가지 방인이 있으니 그는 내가 장차 나의 처음 받은 천부지성을 되찾아서 그를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어 온다면 거의 다른 빛깔에 침해를 받지 않는 ‘흰 누에고치’라 이르지 않겠는가! 아무리 물을 들이되 물들여지지 않으니 이와 같이 된다면 나의 마음은 언제거나 다른 사욕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런 연후에야 실이 비록 누렁이 빛이나 또는 검은 빛깔로 물들임을 받든들 무슨 후환이 있으며 무엇을 슬퍼하겠는가!³⁷⁾

일찍이 조선조의 한문학은 사림층의 문학이 지배적이라고 했을 때, 위의 내용은 聖賢의 정신을 이어 어떠한 유혹에도 물들지 않는 도학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과 정치는 늘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또한 시대에 부응한 대처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문학 역시 사회의 추이에 따라 변화 발전하며 고정불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굴정은 덕행이 타고났으며, 재주가 뛰어나 부모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였다.

굴정은 기묘년에 홍문관에 들어 이퇴계, 유미암과 같이 호당에 올라 조정암과 從遊하였으니 사림들이 공경하는 표본이 되었다.³⁸⁾ 고 한다. 그는 호남의 거유인 박상의 행장을 쓰는 등 당대의 명류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

37) 尹衢, 『橋亭遺稿』, 精微文化史, 2005, 50쪽, 遠要孔孟兮道德事業了了乎俱載六經服其服行其行斯亦可謂染於善矣然豈若親炙之爲愈無己則有一焉吾將復我初堅我守庶幾不曰白乎捏而不緇若是則吾之心自不爲得移然後絲雖染黃而又何以爲悲也染黑.

38) 『尹衢遺稿』, 12쪽.

었으며 최산두, 유성춘 등과 더불어 호남삼걸로 불리게 된 많은 흔적을 남겼다. 또한 그가 연유한 문인들이 대부분 사림들이며 조정암의 주변 인물들이므로 정암의 도학적 학통을 답는다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곽정은 호남사림의 사종인 박상은 물론, 송순과도 시적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대에 이름난 거유들과 많은 시적 사귀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곽정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벼슬을 빼앗기고 해남의 삼산면 녹산으로 유배되었다가 종종 무술년에 승정원에 전하여 職牒을 환급토록 하고 이어 전라도지사에 배수되었다. 이 후 종종 계묘년에 부친상을 당한 후 성균관사성에 여러 차례 제수되었으나 거절하고 노모가 계시는 백련동에 자리하여 거처하였다. 그곳에서 유미암과 최신재 등 많은 문인들과 교유함은 물론, 부친인 어초은의 유지를 성실하게 지키고 추모하며 집안에 충효를 전하였다.³⁹⁾

또한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여 林泉을 낙으로 삼으며 문학창작에 몰두하며 살다가 母夫人喪을 만나 상례를 집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슬퍼하고 애통해하여 몸이 쇠약해져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곽정이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창작정신은 해남가의 많은 학자와 문인들을 통해 이 땅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도학적 풍류를 오늘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윤구의 도학적 풍류를 담은 훌륭한 학문은 현손인 윤선도에게까지 연맥 되어 해남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시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선 해남 가에 문학적 꽃을 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곽정의 시 속에는 그의 생애만큼이나 정치·사회·경제·문화까지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는 시기로 사림문학이 성행했던 터라 도학적 풍류 또는 개인적 차원의 내면적 풍류가 두드러져 있다. 이는 사림문학을 즐기며 삶을 살았던 이들의 나름의 특정한 창의성이며 현실주의적 정신과 사회성을 질게 띤 문학풍조를 낳음으로서 후대의 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

39) 『尹衢遺稿』, 18쪽.

을 끼치게 된 것임을 인지하게 한다.

다음 <登泰山小天下>⁴⁰⁾의 내용을 보면 현실을 초월한 道風을 시적인 어로 형상화하여 인간의 헛된 욕망을忍으로 승화시키는 내면적 비유를 잘 나타내고 있다.

泰山九州間	저 태산은 중국에서 제일 높아
巍乎衆峰霸	여러 산 중에서 으뜸이라네
初秀造化爐	첫 봉우리는 화로 모양을 지어
直壓齊魯跨	제나라 노나라를 거쳐 가로질렀네.
壯哉尼丘翁	장하도다! 공자님께서서는
志大亦無亞	의지가 위대하여 감히 누가 따를 수 없도다.
窮年 ⁴¹⁾ 勞問津	일생동안 애써서 나루를 묻다가
登臨偶得瑕	높이 임하여 우연히 구슬을 얻었도다.
河目 ⁴²⁾ 空宇宙	눈의 시야 한없이 우주에 머물러
風懷一何雅	시원한 풍경과 정회 이 얼마나 우아한가
俯仰天與地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내려다보니
礧礧流一化	당산맥과 탕산맥이 한 맥으로 이어졌네.
回看方寸間	주위의 사방을 둘러 살펴보니
中有難名者	그중에 이름 모를 명물이 있네.
放之謾無外	멀리 보면 넓게 펼쳐서 갓이 없고
攬卽還盈把	가깝게 보면 모두 내 품에 찬듯하네
大包隘而妨	크게 감싸 안음이어도 좁고 방해로우니
浮生視野馬 ⁴³⁾	인생이 마치 떠도는 아지랑이만 같네.
已矣不及見	그만 들지어다! 보려하나 미치지 못하니
櫟催悲豈我	들보가 부러져 끊어진들 내 어찌 슬프겠는가.
卓爾山獨立	높다란 태산이 홀로 우뚝서있으니
巨壑萬古砥	깊은 골 좋은 풍경 만고의 마광석이네
後來登覽者	훗날 태산에 올라 관람하는 사람들
何人小天下	누가 천하를 어찌 작다고 하리요

40) 『尹衢遺稿』, 28쪽.

41) 窮年 : 일생동안

42) 河目 : 눈이 움푹 들어가고 눈까풀이 평평한 모양, 현자의 상

43) 野馬 : 아지랑이

일찍이 작가는 禮曹佐郎의 관직에 재직하던 중 중국 燕京에 사신으로 갔었던 일이 있다.⁴⁴⁾ 그러므로 학문으로서도 중국의 문화를 일찍이 접하였겠지만 실제로 감상했던 그곳의 지리적 조건과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 克己復禮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仁’이다) 를 작품 속에 담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1행의 태산은 道敎의 발상지인 성지이다. 작가는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와 노나라를 멸망시킨 제나라를 태산이 가로질렀다고 했다. 이는 곧 세상을 모두 ‘仁’에 예속시켜 포용하는 공자의 사상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요, 작가가 살고 있는 세상도 높다란 태산에서 변하지 않고 자태를 자랑하는 풍경처럼 평화로운 시대이길 바라는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당산맥과 탕산맥이 이어져 있는 풍경이 멀리 보면 끝이 없고 가까이 보면 내 품안에 있는 것만 같은데 양 산맥을 휘감아 도는 내가 이를 방해한다.’고 했다. 이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작가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함이요, ‘내 품안’은 세속에 시달리는 인간을 표현함이라! 만고의 마광석처럼 변하지 않는 ‘풍경’은 결국 공자의 ‘仁’을 표현한 詩語로 인간의 한갓 헛된 욕망은 자연에 비하면 너무나 나약함일 뿐이라는 걸 깨우치게 한다.

다음의 <失題>라는 시는 사람을 새나 곤충, 동물에 연관시켜 풍자적으로 시대를 비판한 시로 작가의 창작성이 돋보이는 시이다.

蜀鄉司馬子	촉나라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살던 고장이요
魯地數鱣鱗	노나라는 도의와 학문을 강론한 곳이라네
身洽鳶魚化	몸은 도덕과 학문의 이치를 다 통달하였고
胸藏鸞鶴神	마음속에는 신령스런 난조와 학의 정신을 간직하였네
鵬懷天萬里	봉새는 천만리의 넓은 하늘을 나는데
豹隱 ⁴⁵⁾ 霧三春	표범은 늦은 봄 깊은 산안개 속에 숨어있네

44) 『尹衢遺稿』, 12쪽,

45) 豹隱 : 세상에 숨음. 표범은 털을 아껴 비가 오면 숨는다.

薦鸚 ⁴⁶ 呈身急	관직에 오른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기 바쁘고
聞鷄爲善新	닭울음소리 듣노라면 다시 새로움을 느끼네.
竣時吟蟋蟀	가을 귀뚜라미는 때를 기다려서 울고
瑞世慕猗猗	신령스런 기린도 태평성대를 그리워하네
鷓化應無遠	큰 고니의 변화할 시기가 응당 멀지 않고
龜聰學不貧	거북은 총명하여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네
何圖騏蹄蹶	어찌 기린 말굽 미끄러지기를 도모하는가
茹恨鳳鳴辰	봉이 울어 성군 나실 때를 한스럽게 기다려보네
泣玉螢窓下	옥구슬은 반딧불 밑에서 울고 있고
遺珠 ⁴⁷ 滄海濱	명주는 바닷가에 그만 버려져있네
騏驢紅樹路	단풍잎 길목에서 기린은 서성거리고
夢蝶白雲類	흰 구름 낀 물가에서 호접몽 ⁴⁸ 에 젖어보네
烏哺情雖切	까마귀의 반포지정이 비록 간절하나
鹿鳴宴何詢	녹명의 연회를 어디에서 물어볼까
龍擘方側席	대궐집에서 비스듬히 기대고 누웠는데
蝸室豈懷珍	누추한 집에서 어떻게 보옥을 간수하겠는가
鴈塔 ⁴⁹ 題將邇	안탑에 이름 쓸 제목이 장차 가까워오니
鳩棲蠖自伸	비둘기 깃들이면 자벌레 절로 퍼질 것이네

위의 시에서는 촉나라와 노나라를 비교하며 16가지의 동물(표범, 거북, 닭, 기린), 곤충(귀뚜라미, 반딧불, 자벌레, 나비), 새(난조, 학, 봉새, 고니, 봉, 까마귀, 사슴, 비둘기)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길조이며, 행운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노나라는 ‘도의와 학문을 강론한 곳’이며 촉나라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했다. 이 16가지의 다양한 이름과 두 나라의 출현은 작가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권력투쟁과 도의의 학문을 상대적으로 풍자하며 보다 나은 이상을 추구하고자 창작한 작품인 듯하다.

46) 薦鸚 : 스스로 추천

47) 遺珠 :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시문

48) 호접몽 : ‘호접지몽(胡蝶之夢)’은 ‘物我의 구별을 잊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기는데,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49) 鴈塔 : 진사 급제를 이름

그리고 작자는 ‘호접지몽’이라는 고사를 빌어 장자의 사상을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호접몽’은 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기는데,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物我의 구별을 잊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고발하고 ‘녹명의 연회’를 누릴 수 있는 시절을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다. 그는 인간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되었고,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상하로 구분 짓는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만물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철학을 주장했다. 그 결과 만물은 결국 하나의 세계로 귀결된다고 하며 ‘物我一體’와 ‘無爲自然’을 제창하였던 것이다.

장자의 이러한 초탈사상은 자연주의 경향이 있는 문학예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異端으로 배척하기도 했으나 山林의 선비들과 문인들이 그 문장을 많이 애독하였다. 작가는 일찍이 <의제발상론>을 지었었다. 그 문장이 해박하고 사물을 널리 분별할 줄 아는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널리 중국에까지 유입되어 일시에 읽혔다⁵⁰⁾고 전한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 작가는 중국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며 장자의 사상 또한 상당히 그의 작품에 수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0행에서의 鹿鳴은 <詩經>⁵¹⁾ ‘小雅’ 1편의 첫 번째 시로서, 고대에 연회석상에서 불리어졌던 음악이다. 녹명은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여 말하면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우는 사슴의 무리’를 이른다. 사슴은 ‘좋은 풀을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고 베풀 부른다.’는 유래에서 지어진 말로, 이는 많은 임금이 많은 신하와 함께 연회를 열어 화목을 다지면서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하는 화락한 연회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3행에서

50) 『尹衢遺稿』, 앞의 책, 12쪽.

51) 成百曉, <詩經集傳>上, 小雅1편, 2007년, 350쪽, <鹿鳴之什>呦呦鹿鳴食野之苹 我有嘉賓鼓瑟吹笙吹笙鼓簧承筐是將人之好我示我周行.

鴈塔은 진사급제를 이르는 말인데 작가는 일찍이 벼슬자리를 탐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마지막 행에서 ‘비둘기를 길들이면 자벌레는 절로 퍼질 것이다.’ 하여 작가는 결국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겠다는 의지 담고 있는 시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시적풍류를 은근과 끈기의 멋으로 표현한 조선조의 도학적 학풍을 되새김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로 말미암아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조차도 어려울 때 호남의 많은 학자들은 곳곳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힘썼다. 이야말로 은근과 끈기로 멋을 표현해내는 전통적 한국식의 풍류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호남삼걸의 세 문인을 학맥과 인맥적 관계, 그리고 사상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 문인이 모두 기묘사림으로 도학적 학풍을 지녔으며 충효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것, 그리고 작품에 있어서도 도학적 풍류를 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성춘의 작품이 인멸되어 같이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 애석할 뿐이다. 이들은 호남의 거유들을 길러내고 사회로 인한 정신적 애환을 깊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꺾지 않고 삶을 다할 때까지 호남시단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Ⅲ. 白雲風流의 文學史的 意義

16세기 호남의 풍류문학을 논함에 있어 도학과 풍류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림중심이나 계획형식 등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든 누가 뭐래도 역사적 사실과 종교·철학적 영향관계를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전적인 의미인 ‘우아하고 멋스러운 情趣’와 관련지어 도학자들의 시대적·사상적 영향을 고려해 白雲風流를 정리해 보

았다.

16세기 이르러 호남의 시인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사회와 당쟁으로 말미암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시대상황과 연관된다. 호남의 사림들은 정치적 혼돈된 상황 속에서 절의를 주장했거나 각 종 사회에 연루되어 전라도 지방으로 이주해 왔거나 이배되어 온 경우로 종종반정 이후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학맥과 인맥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선전기 정치노선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큰 사상적 대립구도가 이루어졌다. 문학적으로 수사적 기교와 격식을 갖춘 사장을 중시하는 경향의 훈구파와 문인들의 형식적 문사를 중시하기보다는 도학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수기치인의 수양을 중시하는 사림파의 대립된 성향이 맞물려 있다.

김종직 이후 성리학을 기본으로 학문을 추구했던 도학자들은 작시하는 것까지도 배격한 사류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도학을 궁구하면서도 사장을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로 표현하려는 사류가 있었다. 호남사류는 대부분 후자에 속하는 사류이며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류가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전남 순천에 이배되었을 때 신재를 비롯하여 호남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한 한훤당이다. 그의 학문을 계승한 제자들이 조선전기 호남시단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한훤당은 당시 도학을 주창하는 사림으로 詩·文章 등 詞章學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의 詩文이 적었으며 戊午·甲子 두 번의 士禍를 겪으면서 가족과 친지들에 의해 그와 관련된 글이나 문자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를 추종하던 신재 역시 상당부분 작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집안이 한미하여 작품이 유실된 실정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을 전수받은 신재에게 수학한 호남의 거유 河西와 眉巖은 많은 작품을 남겼고 후학들을 양성했으며, 한훤당의 제자인 유계린 또한 성춘·희춘 두 아들에게 학문을 전수하여 호남시단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꽃피우는데 당연 화두로 꼽히며 이

땅에 도학을 뿌리내리게 한 寒暄堂 金宏弼(1454년~1504)과 그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은 新齋 崔山斗(1482-1496)를 중심으로 懶齋 柳成春(1495~1522)), 橋亭 尹懼(1495~1549) 등 湖南三傑을 함께 白雲風流에 포함시켜 살폈다.

백운풍류라는 새로운 문학적 명명은 조선전기 호남(전남·북과 광주를 아우르는 말)의 풍류문학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연구하는 방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정리했다. 첫째, 전북지역으로 최치원이 풍류를 논하며 제자들을 양성했던 유상대를 중심으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太山이라는 명산의 이름을 따서 太山風流라 칭했다. 둘째, 담양의 원림과 정자문화를 감싸고 있는 계산의 이름을 따서 계산풍류라 했다. 셋째, 원림도 정자문화도 계획형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운산은 호남 사림 조종인 한훤당이 주변에 살며 호남의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한 곳으로 호남의 거유 하서와 미암을 길러낸 신재가 태어난 곳이다. 그리하여 호남의 마지막 정맥이며 전남 동부권의 명산인 백운산의 이름을 따서 백운풍류라 칭했다.

새로운 명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인들이 살았던 곳도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림이나 정자문화가 형성된 곳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학을 뿌리내리게 한 한훤당이 머물렀던 곳이며 그를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한 신재 최산두가 태어난 곳이라면 충분히 풍류를 논할 가치가 있는 고장이라는 생각에 몇 년 동안 주춤거리다가 이제야 연구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풍류문학에 강호시가를 포함시킨다고 볼 때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백운산만한 곳을 꼽기 드물다. 첫째는 이곳을 중심으로 잠시라도 생활했던 한훤당이나 신재의 빛나는 학문적 업적들이 뒷받침되었다. 다음은 백운산권의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꼽을 수 있다. 현대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인들의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느껴지는 곳이 있으면 유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정치권이나 문화를 아우르는 단체에

서 안간힘을 쓴다. 하물며 오래된 학자들이 머물렀던 아름다운 고장에 그들을 승양하고 추억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일은 후학으로서 당연히 선행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논문은 학회에서 만족할만한 위치에 달하려면 아직 미숙하며 더욱 더 노력하여 심화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하려 한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리를 펼 수 있길 바라며 先賢들의 올바른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景賢錄』

『國譯 景賢錄』

『國譯 惺所覆瓿藁』

『國譯學圃集』

『橘亭遺稿』

『大東野乘』

『棠岳文獻』

『宋史』

『詩經』

『新齋集』

『安思齋堂集』

『靜菴集』

『河西全集』

『韓侂胄傳』

金堉, 『海東名臣錄』, 동화출판사, 1985, 48쪽~51쪽.

朴煥圭, 『孤山 尹善道の 生涯와 文學』, 전남대학교출판부, 1997, 2쪽.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76쪽, 90쪽, 105쪽.

백숙아, 「新齋 崔山斗의 詩世界」, 『古詩歌研究』18집, 2006, 213쪽.

백숙아, 「橘亭 尹衢의 詩 研究- 風流的 思惟의 接近」, 『南道文化研究』13집, 2007, 200쪽.

成百曉, 『詩經集傳』上, 小雅1편, 2007년, 350쪽.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25쪽, 33쪽.

송수권, 『태산풍류와 섬진강』, 토우, 2000.

이동환, 「海東雜錄」, <崔山斗傳>, 『大東野乘』所載, 財團法人民族文化推

進會, 1971, 76쪽-77쪽.

임형택, 「16세기 광·라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상)』, 1991, 408쪽.

鄭炳連, 「靜菴의 道學倡明과 至治의 理念」, 『儒學思想研究』2, 1987, 45쪽.

崔漢善, 『古詩歌研究』제1집, 「湖南詩歌의 風流考」, 전남고시가연구회, 1993, 287쪽.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11쪽.

투고일 : 2011년 7월 11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Baekun Pungryu and the Three Masters' Speculation

Baek, Suk-ah

This thesis will be a useful material for understanding Choi San-doo and the three Honam masters who studied under Kim Goeng-pil (1454-1504), who is counted as one of major contributors to the blooming of Neo-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and rooted Taoism in this land, and taught famous scholars in those days including Kim In-hoo (1510-1560) and Ryu Hee-choon (1513-1577), and their only teacher and the originator of Honam Taoism Kim Goeng-pil.

Neo-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is literature that recites landscape and nature and disciplines mind through perceiving things based on Chu Hsi Studies. It systematizes the Neo-Confucian world view and its aesthetic consciousness associating cosmic providences with human nature, and names it 'Neo-Confucian aesthetics.' The scholarship of Hanhwondang Kim Goeng-pil, who is the originator of the Sarim faction in Chosun and spread the upright learning of Neo-Confucian aesthetics pursuing the recital of human nature, was handed down to his disciples such as Cho Gwang-jo and Choi San-doo and led the implementation of 'Tao.'

As many scholars have already demonstrated, in discussing Pungryu literature in Honam during the 16th century, it is impossible to neglect historical facts and the relations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influence regardless of whether its focus is forest garden, social gathering, or anything else.

This study also aimed to discuss Baekun Pungryu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of Honam literature in the 16th century and Taoist ideas pursued by Sarim scholars in those days. With regard to the reasons for the new name Baekun Pungryu, on the other hand, Pungryu literature of Honam (a term comprehending Jollanam-do, Jollabuk-do and Gwangju) in the early Chosu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are Gyesan Pungryu in the Damyang area, Taesan Pungryu in the Jollabuk-do area, and the Baekun Pungryu in the east Jollanam-do area, and this classification is considered desirable for reillumin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arim literature more closely.

We discussed first Baekun Pungryu, which was closest to Kim Goeng-pil, the originator of Neo-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and where Sinjae Choi San-doo educated his disciples. The inclusion of the name of a nearby noted mountain in literary naming is considered a meaningful literary value in that when gangho (river and lake) poetry is included in Pungryu literature the combination of nature and artificiality in gangho poetry is managed in scenic spaces and forms a world.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e new literary name Baekun Pungryu is enhanced by Choi San-doo who was born in the outskirts of Mt. Baekun, the last vein of Honam, and refined his scholarship there as well as by the poetic, spiritual and academic association of people related to him.

Key-words : Baekun Pungryu, Gyesan Pungryu, Taesan Pungryu, gangho (river and lake) poetry, Neo-Confucianism and Taoism in the Chosun Dynasty